# 혼합음료 수질 안정성 미네랄 함량 조사

북부지원 먹는물검사팀 조의호



안녕하세요. 북부지원 먹는물검사팀 발표자 조의호입니다.



여러분 물 어떻게 드세요? 대부분 정수기를 렌탈해서 드시거나, 먹는샘물을 많이 사서 드시죠. 아니면 약수물을 드시는 분도 계실것 같은데 저희 연구원 분들은 약수가 그닥 좋지 않은걸 아셔서 안드실것 같고~ 음, 마지막으로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 중에서 저희팀의 올해 연구사업은 먹는샘물과 너무나 똑같이 생긴 혼합음 료를 타겟으로 안정성과 미네랄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혼합음료가 뭔가? 하실것 같은데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다양한 주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스를 분석할꺼면 식품연구부에서 해야지 왜 먹는물검사팀에서 할까 싶죠?

### ● 다음 중 먹는샘물은 무엇일까요?





### 자! 다음 중 먹는샘물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고르세요. 여기서 하나씩 골라서 손들라고 하면 절~대~ 안드시더라구요. 고르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다음 중 혼합음료는 무엇일까요? 음~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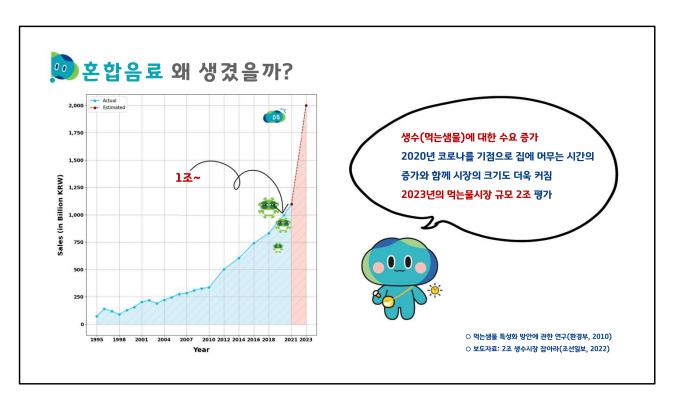


모두 혼합음료 입니다. 생각보다 꽤 많죠? 누가 봐도 그냥 먹는샘물처럼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샘물과 혼합음료의 구별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라벨을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다. 먹는샘물은 품목명에 먹는샘물이라고 써있고, 혼합음료는 식품유형에 혼합음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제주 탐사수 같이 바로 요기에 혼합음료를 표기한 제품도 있지만, 없는 제품도 상당히 많죠. 라벨을 확인하지 않으면 구분할 수 없고,

그렇다 보니 먹는샘물로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먹는샘물과 똑같이 생긴 혼합음료가 왜 생겼을까요? 우선 먹는샘물 시장은 돈이 됩니다. 95년 먹는샘물 판매량 데이터가 집계된 이후로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20년 시장 규모는 1조원에 달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시장의 크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23년 시장 규모는 2조원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수요가 있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하면 좋은 물이라는 인식으로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물에 대한 수요가 있죠.

시장규모의 증가, 미네랄이 풍부한 물에 대한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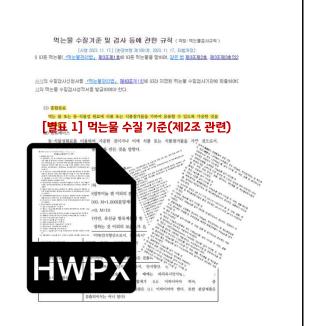
사실 이 두가지 이유라면 지금도 미네랄이 충분히 많은 먹는샘물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혼합음료가 생겼을까요?

## 🧰 혼합음료 왜 생겼을까?

구분	먹는샘물	혼합음료	
관리 주체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법령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영업 조건	환경영향조사 샘물 개발 허가	기타음료 규격 기준 합격	
	제조업 <b>허가</b> 후 영업	식품 영업등록 <b>신청</b> 후 영업	
관리 항목	원수: 48개 항목 제품: 55개 항목	8개 항목 자가검사	
검사 주기	매 분기 1회 이상	2개월 마다 1회	
연장 허가	5년 없음		
원료	지하수	물 + 첨가물 혼입	

- 먹는샘물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환경부, 2010)
- 먹는물관리법(법제처), 식품위생법(법제처식품공전(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먹는샘물은 환경영향조사와 샘물개발 허가를 취득해야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면, 혼합음료는 식품 영업등록 신청 후, 이상 없음이 확인이 되면 영업을 할수 있죠.

또한 관리 항목과 검사 주기에 차이가 있고, 연장 허가에 관한 부분도 다르죠. 먹는물 수질 기준은 3페이지 분량으로 항목에 관한 기준이 있지만,

식품공전 기타음료 기준은 단 8개 항목만 제시될 뿐입니다.

표와 먹는물 수질기준, 식품공전을 각각 비교해 보시면

먹는샘물 시장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는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삼다수 이외에는 먹는 샘물 자체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샘물 시장은 계속 커지고있고, 미네랄 음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는 증가하고,

먹는샘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먹는샘물 개발 자체를 할 수 없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먹는샘물과 유사한 혼합음료가 시장에 출시 된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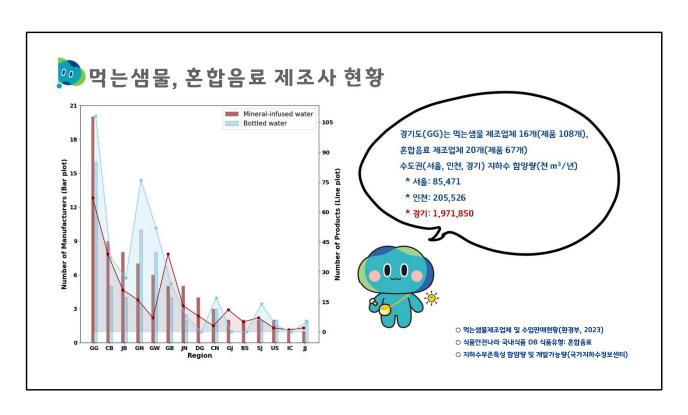
혼합음료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식품유형에 혼합음료를 넣고 검색하면, 6,576개의 혼합음료가 나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등록정보가 나오고,

아래로 내리면 성분 및 원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이걸 넣으면 음료수다 라고 할 만한 성분이면 제외 시켰습니다.

프로틴, 과즙, 탄산, 인삼, 감귤, 과당 등등 이러한 데이터를 정제하고 남은 연구대상 혼합음료가 252개 입니다.

그리고 실제 구매할 수 있던 제품은 34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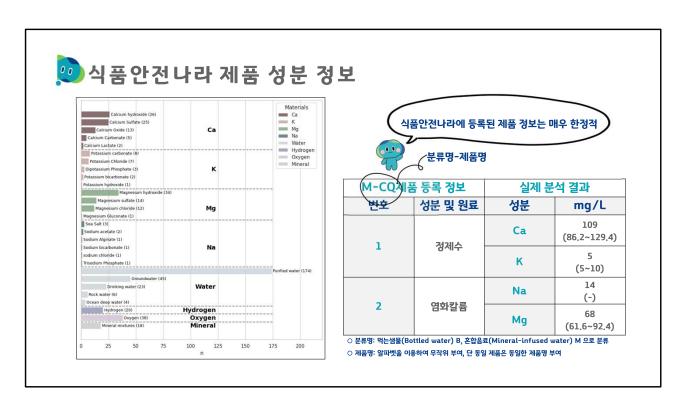
연구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바형 그래프는 제조업체, 라인 그래프는 제품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16개, 혼합음료 제조업체 2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왜 많을까 생각해봤는데 수도권 지하수 함얌량의 86%를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고,

접근성으로 인한 물류비용 저감이 이러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52개 제품의 성분 및 원료를 정리하였는데 다음의 그림과 같은 형태로 분포 해 있습니다.

양이온 분석을 하면서 의하했던 점은 M-CQ(임의 부여) 제품은 식품안전나라에 정제수와 염화칼륨만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분석결과는 칼슘, 마그네슘도 농도가 너무 높았다는거죠.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니 해양암반심층수라고 하는데, 그냥 섬에서 취수공 뚫고 채수한 지하수인데 이를 정제수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등록정보와 실제 분석결과의 차이는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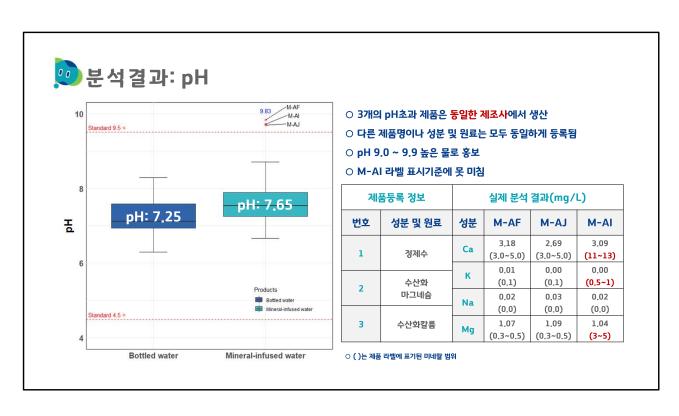
# 🧓 분석결과: 혼합음료 부적합 항목

구분	항목	부적합 건수	먹는물의 수질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우라늄	<b>4</b> (31 ~ 678 ug/L)	30ug/L 이하
	셀레늄	1 (0.15 mg/L)	0.01mg/L 이하
	브롬산염	1 (0.04 mg/L)	0.01mg/L 이하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수소이온농도	<b>3</b> (9.7 ~ 9.8)	pH 4.5 이상, pH 9.5 이하
	아연	1 (8.44 mg/L)	3mg/L 이하
	염소이온	1 (428,1 mg/L)	250mg/L 이하
	탁도	<b>1</b> (5.5 NTU)	1NTU 이하
미생물에 관한 기준	총대장균군	<u>1</u> (검출)	100mL 불검출

 $<sup>\</sup>circ$  먹는샘물(36개 제품, 101개 시료 분석) 부적합 항목 없음, 혼합음료(34개 제품, 34개 시료 분석, 11개 제품, 13건 부적합)

다음은 먹는샘물과 혼합음료를 대상으로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55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선 먹는샘물에서는 모두 불검출되어 설명할 내용이 없는데, 혼합음료는 34개 제품에서 13(11개 제품)건이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sup>○</sup>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pH는 먹는샘물 평균 7.25, 혼합음료 평균 7.65입니다.

혼합음료에서 3건의 제품이 pH를 초과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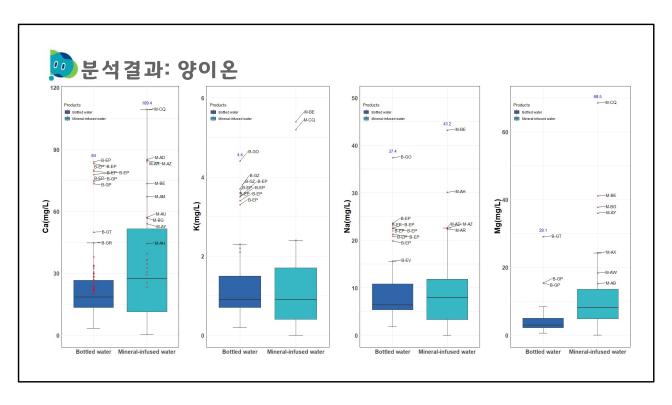
모두 동일 제조사에서 생산된 이름만 다른 제품입니다.

먹는샘물도 수원지는 같지만 각각 다른 제품으로 판매되는 일이 매우 흔하게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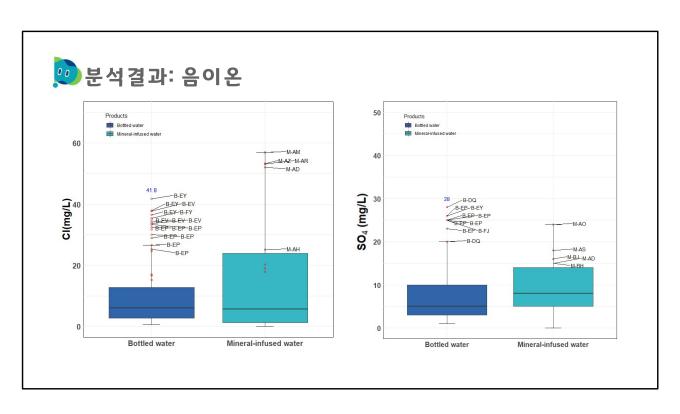
위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업체에서 제시한 미네랄 기준 범위가 있고, 두 제품은 범위가 같고 이 제품은 범위가 다른데,

분석결과는 같은 시료를 반복시험한 것 과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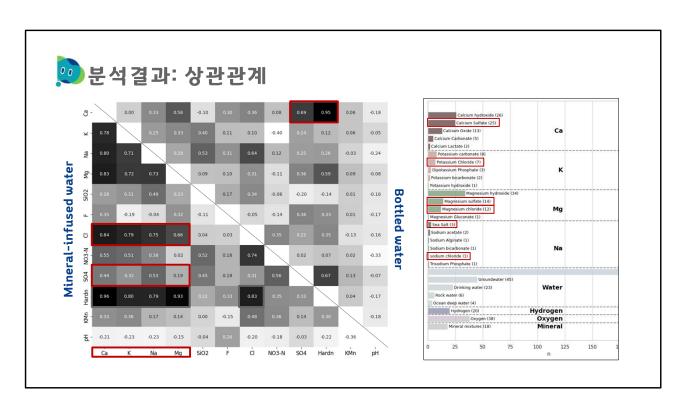
제품 표시량과 실제 값의 차이가 심하지 않나요?



양이온 분석결과입니다. 이상치를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농도는 혼합음료가 높습니다. 국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Ca농도가 매우 높은 제품도 있습니다.



음이온 분석결과인데 양이온과 마찬가지로 혼합음료 농도가 더 높습니다. 염소는 M-CQ 제품의 경우 428.1로 먹는물 기준보다 매우 높았고, 황산이온도 농도는 높지만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자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아,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고 히트맵을 그렸습니다.

대각선을 기준으로 우측은 혼합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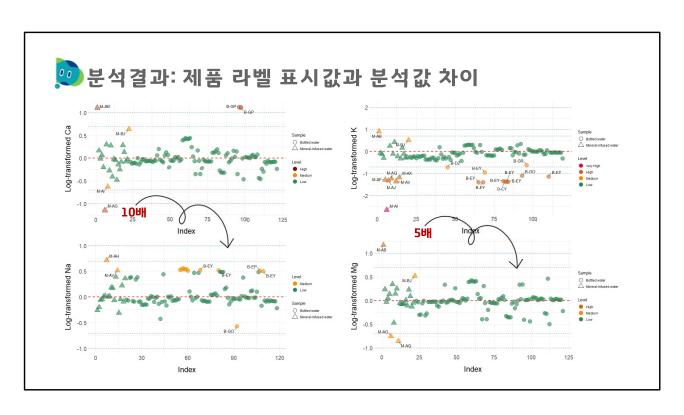
좌측은 먹는샘물의 금속류를 제외한 일반 항목, 음이온, 양이온 간의 상관계수 결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염소와 강한 상관성을 띄고 있어, 미네랄 성분 대부분이 염화물 형태로 주입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안전나라 등록 DB에 등록된 성분 중 황화물형태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요 미네랄 제재인것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하수인 먹는샘물은 황화물 형태의 칼슘이 유의미한 상관성을 띄는것과 대조적입니다. 혼합음료 역시 지하수, 아니면 정제수, 먹는물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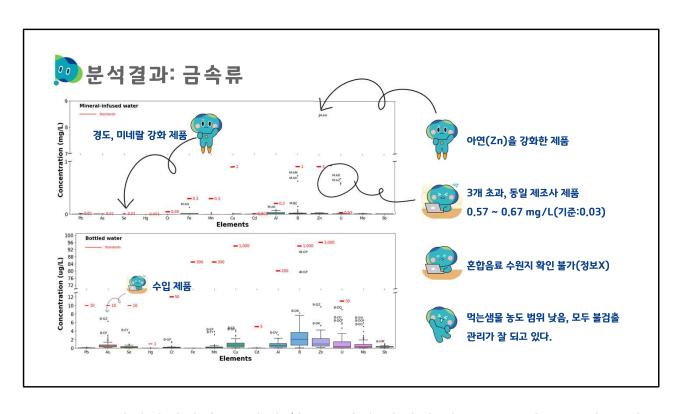
식품안전나라에 제품 등록을 하는 전과정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DB에 등록된 정보만큼은 좀더 세분화 하고, 자세하게 등록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벨 표시값과 실제 분석결과 차이인데, 중심선은 라벨의 최대값, 또는 단일 값을 이용하여, 라벨표시값, 측정값을 로그변환하여 처리한 그래프입니다. 가운데 붉은 0을 기준으로 첫번째 위치한 실선은 5배, 2번째 위치한 실선은 라벨 표기값과 10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시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도 상당하지만,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 라벨과 차이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이는 혼합음료 뿐만 아니라 먹는 샘물도 동일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와 같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 또는 라벨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금속류 분석결과입니다. 우선 혼합음료에서 아연이 아주 높은 값을 보이는 제품은 아연을 강화한 제품이고, 셀레늄이 높은 제품은 경도, 미네랄을 강화한 제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이 20배 이상 초과한 3개 제품 역시 동일 제조사의 이름만 다름 제품인데, 수원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먹는샘물은 수원지를 필수로 표기하고 있지만, 혼합음료는 정보가 없습니다. 먹는샘물은 모두 다 불검출이라, 그래프에 아무것도 표기되지 않을 것 같아서 1000배 확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비소 농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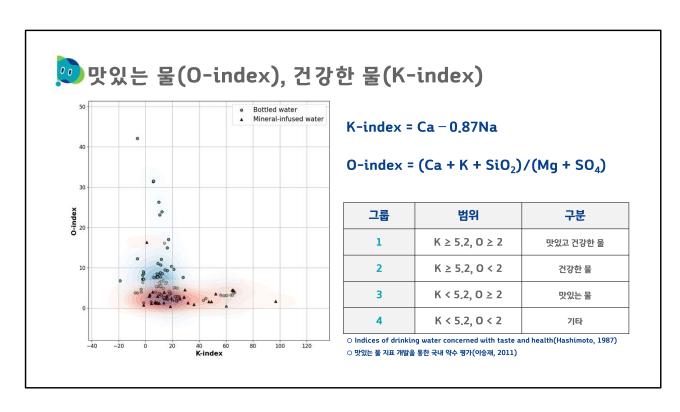


우라늄은 지하수 산출심도가 갚을수록 수용성 우라늄 착화물이 형성되기 싶다고 하는데,

이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결국 우라늄 농도가 높은 암반의 물을 취수하 결 과입니다.

혼합음료 역시 먹는샘물과 같이 수원지 정보도 등록되어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여 음료를 제조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상, 하반기 지하수 원수 검사를 하지만 이때 46개 항목 중 우라늄이 빠져있는게 관리상의 헛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시모토가 1987년에 제한안 이 지표는 칼슘농도가 높으면 모두 건강한 물이 됩니다.

부적합한 물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칼슘 농도, 칼륨, 이산화 규소 농도가 높으면 맛있는물, 건강한 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연구를 통해 공신력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1. 경기도

- 높은 지하수 함양량
- 전국 최대 먹는물, 혼합음료 제조업체 밀집지역
- 먹는샘물 <mark>브랜드 부재(</mark>영세, OEM)
- 경기도 차원에서 규모를 키우고, 신규 사업으로 개발

#### 2. 안전 및 관리

- 제품 정보의 성분 관리 강화, DB 등록 필요
- 혼합음료 중 일부 제품 우라늄 농도 크게 초과
- 지하수 원수 46항 우라늄 추가



### 결론입니다.

으면 경기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가지고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차원의 먹는샘물, 더 나아가서는 혼합음료 브랜드를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원수 46항 분석에 우라늄 추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 3. 라벨링 및 기준

- 제품 라벨의 미네랄 함량 표시 오류 다수(먹는 샘물, 혼합음료 모두)
- 미네랄 표시 기준 확립 필요(예: 평균, ± 오차 범위)

#### 4. 신규 지표 개발

- 맛있는, 건강한 물 지표를 대체할 <mark>새로운 지표 개발</mark> 필요

#### 5. 혼합음료 관리 강화 필요

- 혼합음료 제품수 먹는샘물 관리법 적용 가능성 조사
- 법적 회피 가능성 주의(예: 향, 탄산 첨가 등)



라벨링 기준을 마련하여,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표기법으로 바꾸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맛있는, 건강한 물 지표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가 개발되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음료 제품수를 먹느 샘물 관리법 적용 가능성을 조사하되, 법적 회피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